제약, 2014년 시장 1조달러 돌파

신흥국 수요증가로 고성장 ... 중국은 연평균 14-17% 성장 2위로

세계 의약품 시장이 중국 등 신흥국 수요 증가와 획기적인 신제품 출시로 2014년 1조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제약시장 조사기업 IMS Institute에 따르면, 중국 의약품 시장은 정부 주도의 의료서비스 확충에 따라 연평균 14-17% 성장해 2017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흥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 주도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예방접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특히 영향을 받지 않는 값싼 복제의약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복제의약품 시장비중은 2013년 27%에서 2017년 36%로 증가하고, 신흥시장에서는 6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1조2000억달러에 육박하고, 2/3는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스페인 등 8개국이 차지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은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양이나 당뇨병, 류머티스성 관절염 치료제 사용 증가가 의약품 시장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1/21>